

우리춤으로 열며

2012 우리추신책

예술감독 홍기태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2012.1.18(수) ~ 19(목) 19: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권 균일 5,000원





처용무 : 강모세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인 처용무는 신라 제49대 헌강왕 때의 처용설화에서 유래한 작품으로 처용 탈을 쓰고 청(동쪽), 홍(남쪽), 황(중앙), 흑(북쪽), 백(서쪽)의 오방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춤 사이사이 노래를 부르며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승무(이매방류) : 안주희 뒷반주-김주연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인 승무는 힘과 신명이 넘치는 춤사위, 굽히고 돌리는 연풍대와 호화로운 장삼놀음이 특징이며, 춤의 경건함을 밟아가는 듯 매서운 발 디딤새, 풍요롭게 멋들어진 복가락을 담고 있어 가히 우리나라 민속춤의 정수라 할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도살푸리 : 이정인(수석)

도살푸리춤은 민속무의 하나로 흥살과 재난을 없애 행복을 맞이하게 한다는 안신입명의 종교적 소원에서 비롯되었다. 故김덕순씨가 경기도 도당굿판에서 배웠고 딸 김숙자씨가 전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되었다. 무복은 화려하지 않은 흰색이며 긴 수건에 의한 공간상의 유선이 다양하다.



장고춤 : 황선희(수석), 김동숙, 강미향

설장고춤은 아름다운 장고 가락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시켜 흥을 돋운다. 또한 음악과 어울려 가볍게 움직이는 무용적인 요소가 신명과 멋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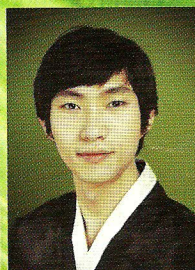


태평무(한영숙류) : 서현미

1930년대 故한성준 선생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왕십리 당곳의 무속장단을 바탕으로 한 태평무는 경쾌하고 특이한 발짓춤에 손놀림이 우아하고 섬세하며 우리 민속춤이 지닌 정중동의 흥과 멋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다.

진주검무 : 이현주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인 진주검무는 궁중에서 연희되던 춤으로 정재무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 춤사위가 다양하고 칼 쓰는 법이 독특하며 처음에 색한삼을 양손에 끼고 추는 것이 특징이다.



고성오광대 「말뚝이춤」 : 허태성, 황동하

약사-상쇠:김동수, 북:이동근, 장구:김은정, 징:장영진, 태평소:윤현호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인 고성오광대 중 2과장의 말뚝이춤은 봉건사회에 있어 그 시대 양반의 추악상을 말뚝이라는 민중의 대표를 내세워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하는 과장이다. 말뚝이의 춤사위는 천·지·인·삼재를 염원하는 활기가 넘치고 역동적인 춤이다.



춘앵무 : 이화성

조선28대 순조의 원자인 효명세자가 부왕을 대리하여 섭정하게 되었을 때 모후 순원 숙왕후의 보령 사십을 경축하기 위해 나라의 진연이 있었다. 이 때 세자가 예재(왕세자나 왕세손이 글을 지음)한 춤이다.

태평무(강선영류) : 류권홍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인 태평무는 궁중의 화려한 복식을 갖추고 나라의 태평성대를표현하는 춤으로 절제된 상체의 움직임과 섬세한 발놀림이 우아하면서도 절도가 있어 그 멋을 더한다.



진주교방굿거리춤(김수악류) : 김주령(수석)

춘당 김수악이 고종황제시 궁중무희였던 故 최완자에게 배운 굿거리춤에 故 김녹주의 소고춤을 접합시켜 춤을 춰오다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 3분의 4박자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추는 진주교방굿거리춤은 한국 춤의 네 가지 요소인 한·흥·멋·태를 고루 갖추고 있다.

산조춤 : 윤은하

거문고 산조를 반주음악으로 사용하여 음률이 까다로운 남성적 악기인 거문고와 여성적인 우아한 춤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한 폭의 산수화 같은 풍경을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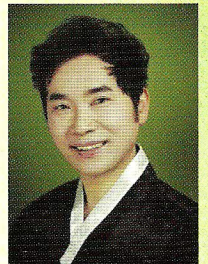


진주검무 : 이상민, 박은혜, 김도은, 김시현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인 진주검무는 궁중에서 연희되던 춤으로 정재무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 춤사위가 다양하고 칼 쓰는 법이 독특하며 처음에 색한삼을 양손에 끼고 추는 것이 특징이다.

살풀이춤(이매방류) : 장래훈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인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한국 전통춤의 백미로 정중동의 미적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살풀이춤은 단순한 슬픔의 춤이 아니라 슬픔을 바탕으로 하되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과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키며 일종의 즉흥무라고 할 수 있다.



태평무(한영숙류) : 이현주

이 춤은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하여 왕비 또는 왕이 직접 춤을 추었던 것을 20세기 초 뛰어난 예술가였던 한성준이 무대공연작품으로 완성한 춤이다. 장중하면서도 빠른 발놀림이 특징인데 빠른걸음의 발디딤이 장단과 어우러져 장단 사이사이에 기교적인 발짓은 이 춤만이 가지는 멋이다.

소고놀이 : 김진영

악사(남산놀이마당) - 상쇠:장재희, 장고:설영성, 북:류제철, 징:방형웅, 태평소:김현일
 풍물 굿의 소고춤은 벽구놀음의 독특한 춤사위와 가락으로 짜임새 있는 춤으로, 경쾌하고 절도있고 몰아치는 장단 위에 역동적인 흐름이 흥에 겨우며 생동감이 넘치고 대개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순으로 이루어지는 사물과 태평소 반주가 춤의 멋과 맛을 더하는 신명나는 놀이이다.

